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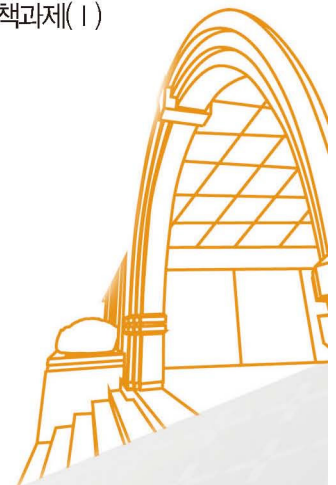
노년기 여성의 학습·일·여가 참여를 통한 활기찬 삶

수행과제명 • 100세 시대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1)
- 학습·일·여가 참여 실태와 요구 -


과제책임자 • 박성정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노년기 여성의 학습·일·여가 참여를 통한 활기찬 삶*

수행과제명  100세 시대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Ⅰ) -학습·일·여가 참여 실태와 요구-

과제책임자  박성정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24

 e-mail: sjpark@kwidimail.re.kr

요약

인생 100세 시대가 예견되면서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삶,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노년기의 자립적 삶의 양식은 “활동적·생산적 노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음. 본 연구는 노년기 여성의 학습·일·여가 참여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생산적 삶을 누리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

박성정·정해숙·최윤정·김주섭·김주현(2013). 100세 시대 노년기 여성의 생산적 삶을 위한 정책과제(Ⅰ) -학습·일·여가 참여실태와 요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배경 및 문제점

인생 100세 시대가 예견되면서 정부와 가족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유지하고 책임질 수 있는 노후설계가 요구되고 있음. 앞으로 학력 수준과 문화 욕구가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세대 진입이 본격화되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삶,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노년기의 자립적 삶의 양식은 “활동적·생산적 노년”이라는 개념으로 접근되고 있음. 그러나 생산적 노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은 매우 미흡함. 생산적 노년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노년 이후 삶을 대비한 제2의 생애 재설계가 필요함. 선진국들은 복지제도와 더불어 고용과 평생교육 등 인적자원정책을 강화하고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은 복지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함. 100세 시대가 화두로 부각되면서 복지정책 외에도 고령자고용정책과 평생교육정책, 여가문화정책 등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으나, 각 부처에서 고령자 대상 정책은 여전히 주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노년기의 생산적 삶을 위해서는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의 적응과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역량개발을 위한 재교육, 고령친화적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 여가의 생산적 활용 등이 요구되며, 노년기의 삶은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친 삶보다 그러한 요소들이 개인의 삶에서 균형 있게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함. 즉, 학습·일·여가가 삶에 잘 통합되어야 노년기의 행복과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음.

특히, 청장년기에 직업경력이 부족하고, 연금가입 비율 및 금액도 적은 노년기 여성은 100세 시대 사회에서 더욱 취약한 계층이 될 가능성이 큼. 여성들은 노후준비도가 남성보다 낮아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 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노년기에도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해야 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노년기에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매우 부족

함. 경제적 문제, 가사와 가족돌봄 문제 등으로 학습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노년 여성들도 많음. 고학력 여성의 경우도 길어진 노년기에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무위의 삶을 보내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저출산으로 인적자원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100세 사회를 맞아 여성들이 노년기의 삶을 생산적으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사업이 절실히 요구됨.

본 연구는 3개년 동안 수행되는 연구의 1차년도 연구로, 노년기 여성의 학습·일·여가 참여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생산적 삶을 누리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생산적 노년의 의미와 요소

1) 생산적 노년의 의미

생산적 노년은 노년기의 삶도 국가와 가족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립적으로 활기차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적극적인 노년상을 지지하는 담론임. 모든 면에서 기능과 역할이 쇠퇴, 축소되어 가는 노년의 부정적, 소극적 이미지를 떨쳐 버리려는 생산적 노년 논의는 노년기 개인에게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도 의미 있는 지침을 제시함. 노인을 보호의 대상에서 사회 기여가 가능한 활동인구로 간주하고 복지 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생산과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조함. 이러한 시각을 노년을 보는 관점의 전환으로 보아 ‘신노년’ 담론으로 규정하기도 함. 최희경(2010: 43)은 “2000년대 이후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등 ‘신노년’ 담론이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지배적인 노인복지정책의 담론으로 수용되

고 있다”고 하였음.

활동적, 생산적, 성공적 노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노년 담론들임. WHO는 1990년대 후반 ‘건강한 노년’보다 포괄적인 ‘활동적 노년’을 채택하였음. 유엔은 2002년 노인의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IPPA)’을 발표하였고, “EU국들도 고령화정책을 이끄는 패러다임으로 ‘active ageing’을 택하였음”(Walker, A. & Maltby, T., 2012: s119).

“성공적 노화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1986년 세계노년학회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노인에 대한 연구의 시각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함(김동배, 2008: 213). 미국의 맥아더재단은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였고, 로우와 칸(Roew & Kahn)은 성공적인 노화를 “질병 및 질병 관련 장애의 낮은 위험, 정신적·신체적으로 높은 기능, 삶의 활동적인 참여의 세 가지 핵심 행동 또는 특성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음(Roew, J. W. & Kahn, R. L., 1998: 38). 성공적 노화와 생산적 노화는 노화를 설명하는 활동이론과 연관됨. 활동이론은 “활동을 통해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제고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유지되고 적응력이 증대될 수 있다”(이소정 외, 2007: 41)고 보는것임. 즉, 젊은 시절의 활동으로부터 단절 내지 분리되어 가는 것보다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노년의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고 성공적, 생산적인 노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임.

생산적 노화에서 “생산적”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생산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활기차다는 의미에서 생산적일 수도 있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도 “productive ageing”, “active ageing”이 맥락에 따라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eing)라는 더 포괄적 개념에 포함됨. 노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이 대두되었고, 성공적 노화의 주요 요소로 “생산적”, “적극적”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노년의 삶에서 생산적이라는 것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제적인 이익이나 기여를 하는 활동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 더 나아가 개인에게 기여하는 활동까지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로우와 칸(Roew & Kahn)은 “유급 취업만을 생산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함. 성공적 노화에 관한 맥아더재단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유급 또는 무급의 모든 활동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정의는 노인들이 기여하는 바를 발견하게 해준다”고 하였음(Roew, J. W. & Kahn, R. L., 1998: 169). 김주현은 생산적 노년 개념을 “유급노동 활동뿐 아니라 가족돌봄 활동, 사회봉사 및 참여활동, 노인의 자기개발을 위한 여가·취미 활동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봄(김주현, 2007a: 4).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노동시장 밖에서의 비공식적 돌봄 활동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돌봄노동을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레일리과 카로(O'Reilly & Caro, 1994: 40)는 “생산적(productive) 노화의 영역으로 고용과 은퇴, 자원봉사, 비공식 돌봄, 교육과 훈련(생산적 노화를 준비시키는 활동)”을 제시하였음. 그들은 비공식 돌봄을 “생산성의 한 형태이기도 하고, 다른 생산적 활동의 장애이기도 한” 것으로 보았음.

2) 생산적 노년의 요소

1995년 백악관 고령화 관련 회의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을 고양하는 네 가지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로 생산적 노년을 들었음. 생산적 노년에는 경제활동, 사회단체활동, 자원봉사 참여, 학습활동, 여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노년의 삶에 건강은 물론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지만 신체적 건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김태현 외(1998)는 노년기 삶의 질에 “신체·정신건강, 심리적 변화, 가

족관계, 직업·은퇴생활, 여가활동”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음. 김동배(2008: 226)는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의 척도로 “자율적 삶, 자기완성 지향, 적극적 인생 참여, 자녀에 대한 만족, 자기 수용, 타인 수용”을 선정하였음. 김주현(2007b: 78)은 노인의 자기개발 활동 특히 사회단체활동 참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하였음. 권중돈·조주연(2000: 63)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분석하여 “남성, 유배우, 교육수준, 신앙, 부모-자녀관계, 경제활동, 건강, 여가활동, 사회활동 등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연령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리하였음. 서구와 달리 가족관계, 자녀가 성공적 노화의 요소로 강조되고 있음. 또한 남성과 여성간에도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김동배(2008: 219)는 노인 심층면접 결과, “여성노인들은 자녀를 통한 만족과 자립적인 삶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고 보고하였음.

선행연구들을 보면,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적 사항, 가치, 방식 등의 요인들이 혼재되어 제시되고 있음. 성공적·생산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범주화해보면, 성, 교육, 혼인지위 등의 인적 특성요인과 자율, 수용, 안정 등 정서 및 가치 차원의 요인, 참여와 통합 등 방식 차원의 요인, 그리고 경제활동, 사회단체 활동, 여가활동, 자기개발 및 교육 활동 등 활동 차원의 요인들이 포함됨.

〈표〉 성공적·생산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역	요인
인적 특성	성, 교육수준, 혼인지위, 자녀, 가족, 건강
가치	자율, 수용, 안정, 안녕, 자립, 안전
활동	경제활동, 사회단체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 교육활동, 자기개발 활동
방식	참여, 사회통합, 세대 결속, 고령친화 환경

이상의 논의들에서 보듯이, 사회활동에의 참여는 노년의 생산적 삶에 핵심적인 것으로, 넓은 의미의 사회활동에는 경제활동, 단체활동, 여가 및 자원봉사활동, 교육 참여 및 학습활동 등이 포함됨¹⁾. 본 연구는 사회활동 가운데 학습, 일,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노년의 생산적 삶을 조망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 학습은 형식교육과 비형식적 교육 등 모든 유형의 교육에의 참여와 자기주도 학습활동을 포함함.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론에서는 성인을 교육의 대상으로서 보다 학습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도 노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교육”보다 “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일은 근로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거나 무급가족종사²⁾를 포함함. 여가활동은 개인의 활동 중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제외한 활동으로 규정함. 다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에 일상생활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여가를 활용하고 즐기는 활동으로 접근하였음.

3 조사 및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년층이 학습, 일, 여가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어떤 참여 요구가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음. 분석사례 3,767명 중 여성은 2,048명(54.4%), 남성은 1,719명(45.6%)로 나타남. 연령별 분포는 55-64세가 49.1%, 65-74세가 31.1%, 75세 이상이 19.8%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남녀의 연령별 특성을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노년 여성은 주요 변인별로 특성을 심층 분석하였음.

1) 이소정 외(2007: 37)는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직업, 종교, 문화, 운동, 사교, 정치, 평생교육, 자원봉사 참여와 경로당 이용의 9개 활동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2) 1주일에 18시간 이상

1) 학습 참여 실태

가. 평생학습 참여 경험과 요구

본 연구에서는 만 5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난 1년간 평생학습 참여 실태를 조사하였음. 조사 결과, 55세 이상 우리나라 노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4.6%임. 노년기 여성의 학습 참여율은 26.9%, 남성은 21.8%인데, 여성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자일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남.

여성은 취미 관련 여가교육의 참여율이 57.8%로 가장 높고, 직업훈련은 28.4%인 반면, 남성은 직업훈련(53.3%) 비율이 가장 높고, 취미 관련 여가교육은 31.5%으로 여성은 여가교육 중심, 남성은 직업훈련 중심적인 성별 차이를 보임. 이러한 경향은 성별 학습 참여 이유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여성은 학습 참여의 이유가 취미·여가생활 때문인 경우가 42.5%로 가장 높은 반면, 남성은 직업역량 개발(39.7%)이 가장 높음.

노년층의 지난 1년간 평생학습 참여시간은 평균 95.8시간이며, 여성은 104시간, 남성은 83.1시간으로 여성의 참여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노년층의 평생학습 투자비용은 평균 14.1만원으로, 여성의 투자비용은 12.2만원, 남성은 17.1만원으로 여성은 평생학습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고, 학습 투자시간 또한 남성보다 많음에도 투자비용에서는 남성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년기 여성 안에서도 학습 시간과 비용의 격차가 뚜렷한데, 소득수준이 높고,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여성의 학습시간과 투자비용이 더 많음.

평생학습 참여자들은 노년기 학습 참여가 정신적 건강·심리적 만족, 활기찬 생활, 육체적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경제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평가가 가장 낮았음. 여성들은 경제활동 참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성보다 평생학습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습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는 남녀 모두 노년기 자기계발이 필요하

며, 학습이 노년기의 생산적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학력별로도 나타나는데, 학력이 높은 여성이 저학력 여성보다 학습 성과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인식 자체도 훨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노년층의 41.8%는 향후 평생학습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 비율은 여성(43.5%)이 남성(39.8%)보다 더 높음. 연령대, 학력, 가구소득별로 참여의사의 격차가 큼. 참여하기 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취미 관련 교육이 64.3%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건강·보건 관련 교육이 33.8%, 컴퓨터 사용교육이 25.2%, 노후설계 교육이 11.4% 등의 순임.

노년층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46.7%)가 가장 많고, ‘일 때문에 바빠서’(44.9%), ‘어디서 어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지 정보를 몰라서’(1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은 남성보다 교육비용 부담, 건강, 연령, 교통, 가사와 돌봄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든 비율이 높음. 노년층의 학습역량 조사 결과, 가장 취약한 부분이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 능력(2.9점)과 학습 참여 정보(2.8점)로 나타나 노년층이 학습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나, 역량은 낮음을 알 수 있음.

나. 직업훈련 참여 경험과 요구

지난 1년간 직업훈련에 참여한 노년층은 전체 응답자의 9.5%이며, 전체 평생학습 참여자 중에서 직업훈련 참여비율은 38.5%임. 남성은 11.6%, 여성은 7.6%로 남성의 참여율이 여성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약 4%p 정도 높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참여율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임. 직업훈련 참여시간은 평균 31.5시간인데, 이는 우리나라 일반 성인의 직업훈련 참여시간(78시간)에 비해 절반이 되지 않는 수준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38.1시간, 남성이 26.1시간으로 여성이 더 많음. 노년층의 직업훈련 만족도와 성과는 상당히 높은 편임.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93.8%가

직업훈련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 차이도 거의 없음. 직업훈련이 일로 연결된 비율은 전체 참여자의 56.2%이며, 취·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자만을 기준으로 하면 87.8%가 훈련이 일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의 성과가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노년기 여성의 직업훈련은 개인의 학력, 가구소득, 거주지역에 따라 격차가 크게 나타남.

다. 노후설계교육 참여 경험과 요구

지금까지 노후설계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년층 비율은 2.8%이며, 이 중 89.3%는 50대 이후에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자들의 86.0%는 노후설계교육이 노후의 삶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노년층의 30.6%는 향후 노후설계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원하는 교육 내용으로는 건강, 여가, 노화에 대한 이해 순이며, 재무, 일, 사회공헌 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음. 노후설계교육에서도 학력과 가구소득은 노년기 여성의 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일 참여 실태

가. 취업 경험

55세 이상 조사대상 중 지난 한 주간 취업률은 58.6%(여 49.7%, 남 69.3%), 한 달간 취업률은 60.2%(여 51.5%, 남 70.7%)임. 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으며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급격히 감소함. 여성은 학력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취업률이 높은데, 예외로 대졸 이상 여성은 고졸 이하보다 취업률이 낮음. 대도시 거주, 건강이 좋고 가족돌봄 부담이 없는 경우 취업률이 높게 나타남. 일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72.3%(여 73.1%, 남 71.5%)로 가장 많으나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돈이 필요해서’를 이유로 드는 비율은 낮아지고 노년 중기부터는 ‘소일거리가 필요해서’의 응답비율이 높

아짐. 여성의 경우, 저학력과 저소득층에서 경제적 이유가 더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능력을 활용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비율이 증가함.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데 남성은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여성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짐. 종사한 일의 종류(직종)는 영업 및 판매 관련직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농림어업 관련직(14.2%), 경비 및 청소 관련직(12.8%), 음식 서비스 관련직(12.6%)의 순임. 여성은 노년 전기에서는 영업 및 판매 관련직(25.0%), 노년 중기에서는 농림어업 관련직(24.7%), 노년 후기에서는 경비 및 청소 관련직(24.2%)의 비율이 가장 높아 나이 들수록 점점 단순노무직 종사 비중이 커짐. 대졸 이상 여성의 경우 영업 및 판매 관련직(23.8%),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14.3%),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1.9%),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11.9%)의 비율이 높음. 종사한 사업체의 종류(업종)는 도매 및 소매업의 비율이 24.7%로 가장 높고, 다음은 농업·임업 및 어업(14.2%), 숙박 및 음식점업(11.1%)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29.0%), 숙박 및 음식점업(17.2%), 농업·임업 및 어업(13.6%)의 순이고, 노년 중기부터 농업·임업 및 어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며, 노년 후기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비율이 크게 증가함. 근로시간 형태를 살펴보면, 전일제가 85.9%(여 78.5%, 남 92.4%)로,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시간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

일을 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보수가 충분치 않다’(59.9%),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다’(59.9%)고 응답하였고 ‘일터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12.3%, ‘일하는 환경이 좋지 않다’는 비율도 32.4%에 달함. 일자리 정보를 얻는 데 가장 많이 활용한 경로는 ‘인맥·개인 소개’(63.6%)인 것으로 나타남. 여성은 ‘인맥·개인 소개’(65.1%)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남성(62.2%)보다 더 많음.

나. 미취업 사유 및 구직 경험

일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건강문제’가 54.7%(여 55.2%, 남 53.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하고 싶지 않다’(32.0%),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22.0%), ‘나이 때문에 취업을 거절당했음’(2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우 ‘건강문제’, ‘일하고 싶지 않다’, ‘능력 부족’, ‘가사일·가족돌봄 부담 때문에’, ‘가족 반대’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반면, 남성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나이 때문에 취업을 거절당했음’, ‘취업 정보 부족’의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음. 여성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문제’, ‘나이 때문에 취업을 거절당해서’, ‘자녀·가족의 반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증가함.

미취업자 중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은 10.5%(여 7.2%, 남 16.9%)임. 남녀 모두 연령대가 낮을수록 구직 활동 비율이 높고, 남성은 노년 중기부터 구직 활동자 비율이 전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짐.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음.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를 구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나이든 사람을 채용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44.6%(여 40.3%, 남 48.2%)로 가장 높고, 여성보다 남성이 이러한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나이든 사람을 채용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비율이 높아짐. 여성은 능력 부족과 근무시간 문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 출퇴근 거리문제에서 남성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음.

다. 은퇴 경험

전체 응답자의 60.0%(여 50.3%, 남 71.5%)가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여성의 경우 뚜렷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경우의 비율이 23.2%로 나타남. 여성의 평균 은퇴 나이는 60.8세, 남성은 62.4세임. 여성의 경우, 무학,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평균 은퇴 나이(각각 64.7세, 64.1세)가 높아 경제적 이유로 가장 오래 일하는 것으로 보임. 읍면부 거

주 여성의 은퇴 연령이 가장 높은 것은 종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여성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48.2%) 은퇴한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정년퇴직·나이가 많아서’(57.3%) 은퇴한 비율이 가장 높음.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면,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53.7%(여 52.9%, 남 54.5%)로 불만족하는 이유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응답이 54.5%(여 55.4%, 남 53.4%)로 가장 많고, 다음이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다’(26.2%), ‘무료하다’(14.3%)의 순임.

라. 취업요구

경제적 자립에 대한 의식이 매우 높고 자식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진 반면 국가 의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일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나 역량은 그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여성의 역량이 남성에 비해 낮은 편임. 전체 응답자의 63.9%(여 53.9%, 남 75.8%)가 향후 일할 의사가 있고, 여성보다 남성의 취업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남.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향후 일할 의사가 있다는 비율은 감소함. 일하고 싶은 연령은 평균 72.5세임. 여성(71.9세)보다 남성(73.0세)이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남.

희망 직종은 영업 및 판매 관련직(23.4%), 경비 및 청소 관련직(21.6%), 농림어업 관련직(17.1%), 음식서비스 관련직(17.0%)의 순으로 나타남.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비 및 청소 관련 및 농림어업 관련직의 비율은 증가함. 여성의 경우,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영업 및 판매 관련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대졸은 제외),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경비 및 청소 관련직, 농림어업 관련직의 비율이 높음. 대졸 이상의 경우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34.7%로 가장 높고, 교육 및 연구직 희망 비율도 14.3%에 달함.

향후 일하고 싶은 방식으로는 응답자의 73.7%(여 63.8%, 남 82.0%)가 전일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취업자의 전일제 비율보다 낮음. 대졸 여성은 고졸 여성보다는 시간제 희망 비율이 높음. 일자리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소득 수준’이 35.2%(여 35.1%, 남 3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이 힘든 정도’(22.4%), ‘능력이나 취미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19.8%)의 순임. 여성의 경우 ‘일이 힘든 정도’, ‘일하는 시간’을 고려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남성은 ‘능력이나 취미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자리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음. 여성의 경우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능력이나 취미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비율은 증가함.

3) 여가 참여 실태

가. 여가활동 경험

노년기 여성의 여가활동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가활동에 자주 또는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5명 중 1명꼴인 22.5%에 불과함. 학력과 가구소득은 노년 여성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로 드러남. 이 밖에 지역, 취업 여부 및 혼인상태도 여가활동 참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가활동 비용이 전혀 없는 노년 여성은 10명 중 1명꼴인 9.0%로 남성의 2.5배에 달하는 가운데, 월 평균 여가활동 비용도 12.6만원으로 남성(25.8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학력과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여가활동 비용의 편차는 매우 큼. 지역, 취업 여부, 혼인상태, 종교 등에 따라서도 여가활동 비용의 차이를 보임.

지난 1년간 노년 여성의 동호회 및 친목회 활동에의 참여 비율은 57.1%로 남성(72.0%)보다 상당히 낮으나, 동호회 및 친목회 활동으로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87.6%에 달해, 동호회 및 친목회 활동이 노년기 여성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또한 지난 1년간 동호회 및 친목회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의 63.4%가 30-40대 젊은 시절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 시절의 동호회 및 친목회 활동

경험은 노년기 동호회 및 친목회 활동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드러남.

지난 1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노년 여성의 비율은 16.4%로, 취업자와 유배우자, 종교가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양상을 보임. 30-40대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했던 사람이 노후에 들어서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봉사활동 분야가 과거 자신이 하던 일과 관련이 있다는 응답은 29.2%로 남성(33.3%)보다 다소 낮음. 봉사활동에 참여한 여성의 절대 다수(95.7%)가 봉사활동으로 삶의 질이 제고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문자 메시지·카카오톡·블로그 및 카페·페이스북 및 트위터 등 SNS에의 접근성은 노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SNS에의 접근성도 학력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좋고,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이러한 SNS 활용으로 노년 여성의 63.6%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1년간 여가 관련 교육에 참여한 노년 여성 비율은 11.8%로 남성(6.6%)보다 더 높고, 참여 여성의 94.2%가 여가교육에의 참여가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나. 여가에 대한 태도 및 요구

노년기 여성의 여가 관련 인식 및 역량을 살펴본 결과, 여가 인식은 남성보다 다소 낮고,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여가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형편이나 여건을 보여주는 여가 역량은 여가 인식에 비해 낮게 나타남. 여가 역량 또한 학력 및 가구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음.

여성의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는 여가 관련 교육(61.3%)에의 참여욕구가 가장 높고, 여가활동 개발(57.4%), 동호회 및 모임 가입(56.2%)의 순을 보이고 있음. 여가활동에 대한 기대 또한 학력이나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의 기대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됨. 노년 여성이 하고 싶어 하는 여가활동은 ‘TV 시청·라디오 청취·인터넷 검색’(58.7%), ‘운동 및 운동경기 관람’(53.8%), ‘여행·관광’(52.4%)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종교활동’(22.4%)을 희망하는 비율이 남성의 두 배에 달함. 노년 여성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의 종류는 여성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임. 즉, ‘TV 시청·라디오 청취·인터넷 검색’과 ‘오락활동’은 학력,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읍면부 거주, 비취업, 무배우인 여성이 더 많이 희망하는 반면, ‘운동 및 운동경기 관람’, ‘여행·관광’과 ‘문화·예술 참여 및 관람활동’, ‘봉사활동’은 학력, 가구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도시 지역 거주, 취업, 유배우 여성이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년 여성이 여가활동을 즐기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비용문제’(33.6%)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가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27.1%),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을 찾기 어렵다’(17.7%)의 순을 보이고 있음. 대졸 이상이거나 가구소득 400만원 이상인 여성의 경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43.8%에 달하고,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을 찾기 어렵다’와 ‘이용하기 좋은 여가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각각 18.8%로 높게 나타난 반면, 무학 또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용 부담(42.3%)을 들은 비율이 월등히 높음. 대도시 거주 노년 여성은 비용문제(40.5%)를, 취업 여성은 여가활동을 할 시간 부족(46.3%)을,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좋지 않은 건강상태(28.6%)를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생활만족도와 생산적 노년 욕구

노년층의 63.3%는 현재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고, 남성(69.1%)이 여성(58.5%)보다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감소함. 여성의 경우,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자, 유배우자, 종교가 있는 여성, 건강이 좋은 경우, 가족돌봄 부담이 없는 경우가 활기찬 생활에 대한 긍정

적인 응답 비율이 높음.

노년층의 노년기 생활만족도·성공적 노후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단독거주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대체적으로 자아존중감도 높고, 노년기 생활만족도·성공적 노후 평가도 긍정적이며, 노년기 생산적 삶에 대한 욕구도 강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응답자들이 교육, 학습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 현재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에,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자아존중감, 노년기 생활만족도·성공적 노후 평가, 그리고 노년기 생산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연령이 젊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주관적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노년기 생활만족도·성공적 노후 평가가 높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산적 노년 욕구가 높을수록 노년기 생활만족도·성공적 노후 평가가 높게 나타남.

5) 노년기 여성의 생애주기별 학습, 일, 여가 특성

노년기 여성의 학습, 일, 여가 실태와 요구를 생애주기별로 종합적으로 조망해보면, 다음과 같음.

가. 노년 전기 여성

노년 전기는 여전히 일을 하고 싶은 요구가 크지만, 일할 수 있는 여건은 과거보다 더 악화되는 시기임. 노년 전기 여성의 취업 희망률은 76.1%로 매우 높고 전일제 희망률이 86.8%에 달함. 그러나 여전히 가사와 가족돌봄 등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에 장애가 있음. 미취업 사유 중 가사와 가족돌봄 부담이 이유인 경우가 중기의 두 배에 달함. 학습 요구도 높아 평생교육 참여 의사가 54.5%, 노후설계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도 44.8%로 나타남. 교육 참여자 중 직업역량 개발을 목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32.8%로 노년 중기 여성의 두 배 정도 비율을 보임. 교육이 취업이나 사회활동으로 연계되기를 바라는 비율도 중기보다 두 배 가량 높아, 사회 참여에 대한 열망이 중기 이후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음.

노년 전기 여성 가운데 별다른 여가활동 없이 지내는 비율이 39.4%에 달하지만, 중기와 후기보다는 낮아 전기 여성이 더 여가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남. 여가의 유형도 운동 및 경기관람, 여행, 사교, 종교, 봉사, 학습, 단체활동 등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이 더 높아 중기 이후에 비해 더 활동적인 편임. 역시 시간 부족이 여가활동의 가장 큰 장애이며,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불만 비율이 중기와 후기보다 높음. 여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역량도 전기 여성이 가장 높음. 여가활동 비용도 가장 많이 사용하여 후기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문자메시지 활용 경험도 76.9%에 달하여 중기 28.3%, 후기 7.0%와 큰 격차를 보임. 노년 전기 여성은 여가를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즐기는 편으로 향후 이 집단이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면 노년층을 위한 여가수요 증대와 함께 현재의 노인여가문화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

나. 노년 중기 여성

노년 중기는 전기보다는 저하되지만 여전히 활동적인 시기임. 중기에는 노년 전기의 의욕과 후기의 참여 장애 요인이 혼재되어 있음. 노년 중기에는 취업률이 노년 전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소일거리로 일하는 비율이 증가함. 전기보다 학력수준이 낮아 일용직 비율이 높고, 종사 직종도 판매직과 단순노무직에 집중됨. 취업희망률은 47.1%로 전기보다 낮고 시간제 희망률이 전기보다 18.1%p 높은 31.3%로 높아짐. 가사와 가족돌봄 부담은 무배우자 비율이 높아지는 중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나, 건강문제로 일 하지 못하는 여성은 증가함. 일터에서의 연령차별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일 하면서 나이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취업을 거절당하는’ 비율이 증가함. 일에 대한 적극적 인식은 여전히 높지만, 전기에 비해 낮고 자식과 국가에 대한 의존의식이 높아짐. 중기 이후 평생교육

참여 목적은 취미·여가와 건강 때문인 비율이 높아짐. 평생교육 참여 희망률은 40.3%, 노후설계교육에 대한 요구는 26.0%로 전기보다 낮지만 후기에 비해 높아 자기개발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음.

노년 중기에 별다른 여가활동 없이 지내는 비율은 44.6%에 이르고 있음. 활동적인 여가활동은 전기에 비해 약간 감소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여전히 전기 수준의 여가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동호회나 친목회, 봉사활동 등 참여 경험은 전기에 비해 상당히 낮음. 여가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여가 역량은 전기보다 낮고 후기보다는 높음. 중기 여성의 과반수인 53.8%는 여가활동 개발, 교육 참여, 모임 가입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할 의향이 있음. 그러나 전기 여성에 비해 비용, 취미 부족, 건강, 연령 등의 장애를 더 느끼고 있음.

다. 노년 후기 여성

노년 후기에는 건강과 연령 문제로 고립과 은둔기가 시작됨. 노년 후기에는 취업률이 노년 중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소일거리로 일하는 비율은 중기보다 더 높아짐. 후기는 고령에다 학력수준도 매우 낮아 일용직 비율이 높고, 농림어업과 경비·청소직 비율이 높음. 후기에는 취업 희망률이 20.0%로 크게 낮아지고 시간제 희망률이 51.5%로 전일제 희망률보다 높음. 후기 여성은 평균 82.8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들이 80대 초반까지를 근로 연령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일터에서의 연령차별 경험은 더욱 증가함. 무배우자 비율이 75.2%에 달하면서 가사와 가족돌봄 부담은 중기보다 크게 감소하지만, 건강문제 때문에 일하지 않는 여성 비율은 71.9%에 달함. 일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은 후기에도 여전히 높지만, 중기에 비해 낮고 자식과 국가 의존 의식이 크게 증가함. 후기 여성은 취미·여가교육, 건강교육에 참여율이 높지만, 나이와 건강문제로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느낌. 후기 여성의 평생교육 희망률은 26.7%, 노후설계교육 요구는 8.9%로 중기에 비해 많이 낮아짐. 건강이 나빠지는 만큼 고령친화 교육환경, 교통편의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

시간 여유가 많은 노년 후기에도 별다른 여가활동 없이 지내는 비율은 56.6%에 달함. 활동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중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함. 동호회나 친목회, 봉사활동 등 모임에 참여한 비율도 전기의 1/3, 중기의 1/2 수준에 불과함. SNS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한 경험은 문자메시지 7% 외에 거의 없음. 후기에도 여가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데 비해 여가 역량은 전기와 중기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임. 여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비해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는 낮음. 그러나 노년 후기 여성의 평균 37% 정도는 여가교육, 모임, 취미 개발 등을 희망하고 있음. 후기 여성도 비용, 취미 부족을 장애로 느끼고, 특히 건강을 장애로 느끼는 비율이 37.4%로 중기의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나이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중기의 세배 가까이 증가함.

4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체 노년층 가운데 여성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남녀를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였지만, 연구의 초점은 여성이므로 정책과제는 연구주체인 노년기 여성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함. 노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복지적 지원 정책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년층을 적극 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등 생산적 노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노년층은 특정 연령 기준에 따라 나뉘는 생애주기별 연령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안에서도 연령대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학습·일·여가를 중심으로 한 사회활동 참여도와 지원요구 등은 다양하게 나타남. 따라서 노년층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특성들을 파악하고, 각 집단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정부는 최근 10여년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응하는 정책 대응을 강화해 왔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정책 대응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저출산 현상이 고령화와 더불어 국가적 위기감을 초래한 상황과 맞물려 진행되어 왔음. 최근에는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은퇴 추세가 사회적 위기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노년기 대비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

첫째, 정책 설계에 성인지적 관점이 미흡함. 노인정책의 기본 틀이 남성의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구축되면서, 노년기 여성들의 생애주기별 삶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연금, 보건, 취업, 은퇴 관련 정책들은 노년기 이전 여성과 남성의 상황과 조건의 큰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취업 경력이 없거나 경력단절자가 많은 여성들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정책설계가 필요함.

둘째, 정책방향과 과제들이 노년층에게 최소한의 안전과 복지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물론 최소 생활수준의 보장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정책이 가장 기초적인 안전 확보 수준에 집중되다 보니, 사회적 소외에 고통 받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여가, 문화, 교육정책들은 부차적으로 취급되거나 간과되고 있음. 인간은 최소한의 기초 욕구 충족만으로는 행복을 느끼기 어려움. 고령화 사회에서는 모든 고령인구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 총체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셋째, 복지 위주의 정책이 노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일자리의 질이 낮아 정책 수혜대상이 일부에 국한되고 있음. 노년기에도 젊은 시절의 경륜을 활용하고 잠재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년층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앞으로 맞이할 100세 사회에서 노년층을 위한 정책은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노년기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

활동과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학습, 일, 여가의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것임.

제안1) 학습 참여를 위한 과제

- 1) 저소득층 노년여성을 위한 학습비 지원
- 2) 학습 정보지 등 노년층 대상 학습 정보 서비스 강화
- 3) 노년층을 고려한 학습 환경 및 교통편의 제공
- 4) 기존 시설을 활용한 학습인프라 강화
- 5) 평생학습사의 노년층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순회 파견 실시
- 6) 무학 노년 여성을 위한 문해교육 확대
- 7) 노후설계교육 확대 및 실시 기관의 다양화
- 8) 노후설계교육 전문인력 양성

제안2) 일의 참여를 위한 과제

- 1) 노년기 생애주기별·학력별 인력개발 정책의 강화
- 2) 노년 전기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3) 노년 중기, 후기 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개발
- 4) 미취업 노년 여성 취업교육 및 취업 노년 여성의 직무교육 기회 확대
- 5) 고학력 노년 여성의 능력 활용 일자리 개발
- 6) 저학력 노년 여성 대상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7) 고졸 및 대졸 노년 여성 직업상담 강화
- 8) 노년층 직업훈련의 전문성·체계성 강화
- 9) 노년층 직업훈련 도우미(가칭) 배치
- 10) 노년기 생애주기별·성 인지적 노후직업설계교육 확대
- 11) 직무특성상 불합리한 연령차별 관행 개선
- 12) 노년층 집중 일자리의 작업환경 관리

제안3) 여가 참여를 위한 과제

- 1) 노년층 여가활동 지원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
- 2) 노년 여성의 여가활동 개발 지원
- 3) 소외계층 노년 여성의 여가활동 지원 강화
- 4) 노년 여성의 봉사활동 기회 확대 및 분야 다양화
- 5) 노년 여성의 여가 관련 교육 기회 확대
- 6) 노년 여성을 위한 움직임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
- 7) 노년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확충을 위한 SNS 활용교육 및 소모임 활동 활성화

제안4) 생애주기별 사회참여를 위한 과제

- 1) 노년 전기 여성: 학습·일·여가 정책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2) 노년 중기 여성: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장애요인 관리 강화
- 3) 노년 후기 여성: 사회활동 유지를 위한 환경 구축과 프로그램 확대
- 4) 노년기 생애주기별 학습, 일, 여가정책의 연계

5 기대효과

- 노년 여성의 생애주기별 대응책 강화
- 노년 여성의 학습활동, 일, 여가활동 기회 확대로 삶의 질 제고
- 노년 여성 삶의 체계적 설계 지원

참고자료



- 권중돈·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동배(2008).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1), 211-231.
- 김주현(2007a). 생산적 노년의 복잡성.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 논문.
- _____(2007b). “노인 생산적 활동의 복잡성과 생활만족도”, 한국인구학, 30(3), 57-81.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애순(1998).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8(1), 150-169.
- 이소정·정경희·이윤경·유상현(2007).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희경(2010).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한국사회정책, 17(3): 41-65.
- O'Reilly, P. & Caro, F. G.(1994). Productive aging: An over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ging & Social Policy*, 6(3): 39-71.
- Roew, J. W. & Kahn, R. L.(1998). *Successful Aging*, NY: Dell publishing.
- Walker, A. & Maltby, T.(2012). Active ageing: A strategic policy solution to demographic ageing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21: s117-s130.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관계부처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